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 뉴스레터 No.41 2018년 3월호

목차

- I 제 12 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 특설 사이트..... 1
- II 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소식(연재 16)
「제 9 회 세계도시포럼 -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 2

I 제 12 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

2018년 8월 1일(수)~3일(금)에 후쿠오카시에서 개최되는 제 12 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 특설 사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제 12 회 서밋 공지, 프로그램, 회의개요 등 회의의 최신 정보를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 홈페이지 : <http://apcs.city.fukuoka.lg.jp>



NEWS



II 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소식(연재 16)



제 9 회 세계도시포럼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상업빌딩 벽면을 이용한 홍보

UN 해비타트가 2년에 한번 개최하는 ‘세계도시포럼’의 제9회 회의(WUF9)가 2018년 2월 7일부터 13일까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개최된 것은 2008년 4회 난징 회의 이후 10년만입니다.

이번 회의의 테마는 “Cities 2030, Cities for All: Implementation the New Urban Agenda”로 2016년 11월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개최된 해비타트 3(자세한 정보는 2016년 12월호 참조) 이후 첫 세계포럼으로 해비타트 3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 어젠다’가 착실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과 각 조직이 다양한 관계자와 더욱 연계하여 과제나 모범 시책들을 공유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이었습니다.

개회식에는 말레이시아의 나지브 총리가 참석하여 개회선언을 하면서 7일간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 회의장에 모인 회의 참석자 수는 약 22,000명에 달했고 역대 최다인 165개 나라와 지역에서 참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전시장을 찾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별도의 행사장이 마련되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체현한 모델 하우스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회의 테마 관련 서적을 누구나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단체의 행사도 연일 이어졌습니다. 또한 국제 공항 안, 지하철 역, 주 회의장 주변에는 WUF9 배너와 간판이 곳곳에 설치되었고 WUF9 로고마크가 래핑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등 회의 기간 동안 쿠알라룸푸르는 그야말로 WUF9 일색으로 물들어 지역에서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시내 공원에 설치된 시민 참여형 전시물



자치단체 관계자 회의에서 후쿠오카시의 시책을 소개하는 후쿠오카시의 다카시마 시장

회의 기간 동안 각국 대표자가 모이는 장관급 회의와 자치단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도 마련되었는데, 자치단체 관계자 회의에서는 후쿠오카시의 다카시마 시장도 후쿠오카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전체 회합 외에도 ‘사이드 이벤트’라 불리는 560개 정도의 테마별 분과회가 속속 개최되었고 전시장에서는 전시 부스에 설치된 작은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토크 세션을 여는 단체도 많아 참가자들은 이곳저곳 관심있는 테마를 찾아 다녔습니다.



방문객으로 붐비는 전시장

이 회의가 실질적인 취임 행사가 된 모하메드 샤리프 사무국장은 각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담 뿐만 아니라 전시회 출품자 격려, 쿠알라룸푸르 시에 새로 생긴 렌탈 사이클 시승, 외부 행사장에서 시민들과의 교류 등, 연일 정력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지속 가능한 시책을 PR 했습니다. 이전에는 폐난 섬 시장이었고 시장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도시계획 입안과 실천에 종사해온 사람답게 현장과 시민들의 생각을 중요시한다는 점, 알기 쉽게 눈에 보이도록 생각을 드러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쿠오카 시장과의 면담에서는 다카시마 시장으로부터 올해 8 월에 후쿠오카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도시서밋에 초대를 받았는데 각 도시의 시장들이 연계해서 도시개발과제를 논하는 시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WUF9 기간 동안 도시에 관련된 다양한 과제 -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자연환경과 거주환경의 악화, 자연재해 피해복구, 재해에 강한 도시조성, 기후변동에 따른 위험 대응, 토지소유권 문제, 도시계획의 착실한 이행, 지속 가능한 사회에 관한 교육과 인재육성, 행정운영을 위한 시민과 민간 분야의 참여, 고령자와 장애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조성, 격차와 빈곤, 피난민의 재정착 유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기술 개발, 과제해결을 위한 플랫폼 형성 등 여기서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테마에 관한 논의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이드 이벤트 행사장 뿐 아니라 전시장과 행사장 복도에서도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날의 폐회식에서는 쿠알라룸푸르 선언이 발표되어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더욱 가속화하여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 어젠다'를 각 도시의 현재 상황에 맞춰 가며 규모를 확대하여 전개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포함하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적절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또한 재해에 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달라고 참가자 모두에게 당부했습니다.



폐회식에서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발표하는 모하메드 샤리프 UN 해비타트 사무국장

이곳에서 공유된 정보와 의견을 어떠한 형태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할 지 "What's next?" 이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다음 2020년 제 10 회 세계도시포럼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개최됩니다.

쿠알라룸푸르 선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http://wuf9.org/kuala-lumpur-declaration/>



향후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회의 일정

개최시기	회의명	개최도시
2018년 8월 1일~2일 ※3일은 시찰	제 12 회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후쿠오카시(일본)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Asian-Pacific City Summit)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회의 및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도시의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회원도시 (13 개국 30 개 도시)

오클랜드 시(뉴질랜드)	가고시마 시(일본)
방콕도(타이 왕국)	기타큐슈 시(일본)
브리즈번 시(오스트레일리아)	쿠알라룸푸르 시(말레이시아)
부산 광역시(대한민국)	구마모토 시(일본)
창사 시(중화인민공화국)	마닐라 시(필리핀 공화국)
다롄 시(중화인민공화국)	미야자키 시(일본)
후쿠오카 시(일본)	나가사키 시(일본)
광저우 시(중화인민공화국)	나하 시(일본)
광양 시(대한민국)	오이타 시(일본)
호치민 시(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포항 시 (대한민국)
홍콩특별행정구(중화인민공화국)	사가 시(일본)
호놀룰루 시(USA)	상하이 시(중화인민공화국)
이포 시(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공화국
자카르타 특별시(인도네시아 공화국)	우루무치 시(중화인민공화국)
제주 특별자치도(대한민국)	블라디보스톡 시(러시아 연방)

【편집·발행】 2018년 3월 23일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사무국 (후쿠오카시 총무기획국 국제부)
〒810-8620 후쿠오카 시 주오 구 덴진 1-8-1
TEL: +81-92-711-4028 FAX: +81-92-733-5597
E-mail: apcs@city.fukuoka.lg.jp Website: <http://apcs.city.fukuoka.lg.jp/han/>